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문항개발

김 미 지[†]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간편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보상담자 7명을 대상으로 상담 중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와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질적으로 분석한 자료(김길문, 2003)를 바탕으로 194개의 문항을 만들고, 주제별 범주화 작업과 예비조사를 통해 117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다음 이 예비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경력이 3년 이하인 초보상담자 15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 문항-총점 상관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 내담자 특성, 내담자 이해와 공감, 상담자 특성, 사례개입방법이라는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은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객관적이고 양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를 통해 다양한 양적 연구에 사용할 수 있고 상담자교육과 수퍼비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의 의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초보상담자, 상담 중 경험하는 어려움, 요인구조, 신뢰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미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03-103) 인천 부평구 부개3동 한신아파트 111-1702
Tel : 010-4360-7595, E-mail : mijiblu@naver.com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다루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여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상담에 임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진실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상담자의 자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담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담자라도 어떠한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구분된다(George & Cristiani, 1981;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전문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법을 의미하며, 인간적 자질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태도나 품성과 같은 성격특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열의에 가득 차 있고 이론적인 지식도 열심히 습득하지만(Baker, Daniels, & Greeley, 1990)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한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전문적,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으며(Moras & Strupp, 1982), Beery(1970)는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 간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Hill과 Charles, Reed(1981)는 수련생이 타이밍, 적절한 개입, 내담자 역동의 이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학자들은 수련생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불안과 개인적인 반응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Kagan et al., 1965; 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이 외에도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를 비교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대한 연구(박외자, 2002), 상담자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심홍섭, 1998), 사례개념화 수준에 대한 연구(이윤주, 김계현, 2002), 역전이 관리 능력에 대

한 연구(장세미, 1999; 최가희, 2002) 등을 통해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초보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 중 한 두 가지 변인만을 다루고 있어,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초보상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보상담자가 회기 내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과정(김길문, 2003),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손유미, 2005),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이승은, 2002)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로서, 양적연구에서 밝혀지기 어려운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지만 일반화,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 특히 초보상담자가 회기 내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과정을 살펴본 질적 연구를 주로 참고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초보상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고 있는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내용들 중 의미 있는 특성을 추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정리,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문항은 초보상담자 본인과 그들의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울 수 있고, 연구자들은 다양한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척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는 없지만 세부적인 변인을 다룬 연구들을 통합하여 이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만한 부분을 다룬 연구들, 특히 초보상담자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홍수현과 최해림(2001)은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상태 불안이 낮아지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협력관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최은실(2002)은 초보상담자들 중에서 반응 부담을 받지 않은 집단과 반응 부담을 받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반응 부담을 받지 않은 집단이 내담자의 행동과 감정, 생각, 이면의 마음을 더 잘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학기의 실습 기간 전후에 초보상담자의 상태 불안과 역전이 관리 능력, 치료기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자기 효능감도 약간은 증가하였다고 한다(Nutt-Williams, Judge, Hill & Hoffman, 1997).

앞선 연구 결과들은 초보상담자들이 상대적으로 상태 불안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낮으며, 그럴 경우 상담 회기 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 초보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말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수퍼바이저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등의 걱정을 한다(최은실, 2002). 따라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회기 내에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부담에 따른 상태 불안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상담자-내담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상담의 중요한 변수이다.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언어적 반응 차이를 기술한 연구들에 따르면 초보상담자들은 제한된 일정유형의 구문형식을 나타내는 반면, 숙련상담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구문형식을 보며, 다양한 내담자 반응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Tracey, Hays, Malone, & Herman, 1988). 이선자와 최해림(2002)은 상담에서 같은 수준의 대인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초보자는 숙련자보다 더 지시적이고 위협적이며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더 깊이 있는 개입을 한다고 했다. 상담자는 적절한 시기에 지시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촉진적인 자세로 상담 개

입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보 상담자들은 숙련상담자에 비해 ‘질문’, ‘반영’, ‘지시적인 반응-안심시킴’, ‘설득’, ‘직접질문’, ‘화제주도’를 많이 하고 반면에 ‘개방질문’과 ‘직면’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 Hall, 1971). 또한 김봉아(2000)는 초보상담자들의 경우, 주로 한정질문, 개방질문, 재언급, 반영 반응이 많고 이때 내담자들은 단순반응, 기술, 경험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험이 적은 상담자는 말이 많고, 감정 표현을 빈번하게 하며, 직접적 지시, 충고, 침묵 등의 언어 반응을 자주 사용한다는 Scher(1975)와 Sippy 등(1988)의 연구도 초보상담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침묵 사용에 관한 Howell과 Highlen의 연구(1981)에서 초보상담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곤란스러워서 침묵했던 반면, 숙련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항과 내담자 성격특질과의 연구 결과, Schuller(1991)는 저항과 내담자의 성격 특질간의 연관성을, Mahalik(1994)는 내담자들 간의 차이가 저항의 변인임을 주장한 반면, 조성호(1997)은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저항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숙련 정도가 저항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Egan(1994)은 특히 처음 상담에 임하는 사람은 저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담자가 저항할 때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초조해지고, 내담자가 미워지고, 죄의식이 들고, 상처를 받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성공 사례의 경우 내담자 저항 뒤에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저항을 감소시켰으나, 실패 사례의 경우 내담자 저항 뒤에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저항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권희경, 안창일, 2001)는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이 상담의 성공 여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Gelso와 Carter(1985)는 역전이 행동과 역전이 감정을 구분하고, 역전이 감정은 치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이를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치료에 유용하기도, 유해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역전이 관리 능력과 치료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 5개 즉, 자기통찰, 공감능력, 가치통합,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이 치료 성과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그리고 숙련상담자는 일반상담자들보다 역전이 관리 능력의 5개 하위요소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평정되었다(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Hayes, Wagoner, Gelso, & Diemer, 1991). 한편, 역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관점 연구(Hayes, McCracken, McClanahan, & Hill, 1998)에서는 역전이가 유발되었을 때,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반응, 내담자에게 회피하는 반응,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반응,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반응 등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보상담자들의 경우 숙련상담자에 비해 역전이 관리 능력이 낮으며 따라서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심리적·대인 관계적·행동적 문제와 장점·이 문제와 관련된 원인 및 촉발·유지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과 더 나아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 및 기법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론적 접근들은 상담수련생이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맺는 능력에, 문제의 기저에 있는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행동을 이해하는 사례개념화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Eells, 1997; Persons, 1991). Eells(1997)는 사례개념화가 치료를 이끄는 청사진으로서, 내담자의 변화를 판단할 기준으로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홍섭(1998)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바이저들은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상담자들

의 사례개념화 능력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례개념화를 상담자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한 준거로 지적했다. 즉 사례개념화는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숙달되어 가고, 상담자로서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통해 향상되어 가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내담자 및 상담사례에 대한 단편적 이해보다는 핵심문제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세워질 수 있는 상담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이운주, 2001). 또한 내담자에 대한 가설형성에 있어서는 전문상담자가 초보상담자보다 많은 양의 복합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를 압축하며 조정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혀졌다(이혜경, 2000).

박성수 등(1997)은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상담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협력관계의 형성은 상담사례수, 상담회기수, 수퍼비전 받은 횟수가 많은 고경력 자일수록 안정적이며, 이러한 경력요인은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보다는 상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강혜영, 1995). 이에 더하여 Mallinckrodt와 Nelson(1991)은 상담자 수준을 초급상담자, 중급상담자, 전문상담자로 나누어 작업동맹 평가질문지(WAI)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유대는 상담자 훈련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표 일치 및 과제 동의에 대한 지각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Nutt-Williams 등(1997)의 연구에서는 치료 회기 내에 개인적인 걱정을 보고하지 않는 초보 상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걱정 범주에는 치료적 기술과 수행에 대한 걱정, 치료적 역할에 대한 걱정, 어려운 내담자와 치료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걱정, 특정한 내담자 내용에 대한 반응 걱정 등이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 인식을 활용하며 상담자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슈퍼바이저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 방법들 중 부정적이고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이나 주제를 회피하기, 객관성을 상실하기 등의 문제들을 보인다고 했다.

김길문(2003)은 상담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초보상담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대처과정으로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슈퍼비전은 숙련된 전문상담가가 초보 또는 미숙한 상담자를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Bartlett, 1983; 최해립, 2003에서 재인용)으로 대표적인 상담교육 중 하나이다. 문수정과 김계현(2000)에 따르면 초보, 중간, 숙련의 경력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내담자 문제의 평가’, ‘핵심메시지 알아차림’, ‘치료목표의 수립과 처치계획’, ‘처치개입 기술’ 등의 요구가 높다고 하며, ‘내담자의 호소문제 파악능력’과 ‘상담 구조화 능력’에 대한 슈퍼비전 요구는 초보상담자 집단이 숙련상담자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 초보상담자들을 위한 슈퍼비전의 교육내용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움 경험 연구(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에서는 인턴상담원들이 ‘내담자 이해’, ‘상담에 대한 인식 확장’, ‘자신에 대한 인식 확장’, ‘사례운 영방법 학습’, ‘구체적인 지적과 조언’, ‘슈퍼바이저의 정서적 지지’의 범주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내담자 이해와 상담에 대한 인식 확장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초보상담자들이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을 구조화, 운영하며 치료적 기법 세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부분에서 도움 받은 경험을 보고하는 것은 초보상담자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길문(2003)은 초보 상담자의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질적 분석에서 초보 상담자 19명의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로 작성된 축어록을 긍정적인 결과 사례와 부정적인 결과 사례로 분류한 후 영역코딩과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과 감사의 과정

을 통한 합의적 질적 분석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가 비협조적 반응 및 태도, 상담에 대한 불만, 종결 의지 표현 등의 반응을 보였을 때, 상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화남, 당황함, 걱정과 부담 등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상담의 초반 회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상담자의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감정을 억제하기, 대처 전략 모색하기, 슈퍼비전, 다른 상담자와 의논, 개인적인 노력, 교육 분석, 문헌 참고 등의 노력을 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결과 집단의 경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외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과정, 그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었지만 구체적인 어려움 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제적으로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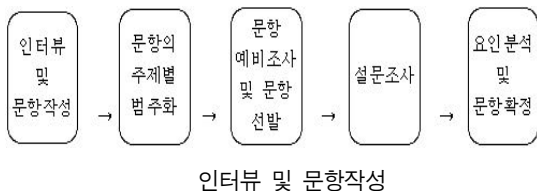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상담자의 경력 구분은 합의된 기준 없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Bohn(1965)은 상담자를 APA에서 인준한 임상 · 상담 심리학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학생들로서 최소한 심리상담에서 한 강좌를 수강하고 실제 상담 경험이 한 학기 이상 축적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Beery(1970)는 최소한 4년의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치료자를 숙련상담자로 정의했고 실습 전 수준에 있는 대학생을 비숙련상담자로 정의했다. Hill(1975)의 연구에서는 인턴 수준에 있고 최소한 2년의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숙련상담자로 정의내린 한편, 윤경자(1993)는 상담경력 6년 이상인 상담자를 숙련자 집단으로, 2년 이하의 상담자를 비숙련자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초보상담자를 상담을 전공하는

학사취득이나 석사재학이상의 교육경험이 있고 상담 경력 3년 이하인 상담자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보상담자들은 상태불안이나 자기 효능감이 낮을 때, 내담자가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때, 역전이 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언어반응이나 사례개념화와 같은 상담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힘들고 괴로운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어려움 경험을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한 이유는 초보상담자들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이론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초보상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선별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방 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선행 연구와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관한 인터뷰로부터 가능한 문항들을 수집하고 이들 간의 공통성을 추출해 나가면서 개념의 틀과 범주를 형성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을 통한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문항을 분석하고 확정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력 3년 이하의 상담전공 대학원생 초보상

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중 인적사항이나 경험한 어려움의 내용이 겹치지 않는 7명의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50분이 소요되었으며 ‘상담을 하면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꼈던 상황’, ‘상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상황’, ‘상담자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교육이나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황’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이 때,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에피소드와 어려움 경험을 보고하게 하였다. 인터뷰 대상 초보상담자들은 다양한 인적사항과 상담경력으로 초보상담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 7명 중 여성은 6명, 남성은 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7.3세였다. 대상자들의 상담경력과 사례수, 회기수는 다양하였는데 평균상담경력 12개월이었고 평균 4.3사례, 49.6회기를 진행한 초보상담자였다. 이 자료를 통해 86개의 문항을 추출하였고 선행연구 문헌, 그리고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을 살펴본 김길문(2003)의 질적 연구에 사용된 초보상담자 19명의 자료를 해당 연구자의 동의하에 분석하여 초보상담자가 경험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려움 문항 108개를 추출,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같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194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1. 초기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및 상담경력

대상	성별	나이	상담경력	사례수	회기수
상담자 1	여	만 25세	11개월	3사례	24회기
상담자 2	여	만 27세	18개월	3사례	55회기
상담자 3	남	만 31세	3개월	2사례	10회기
상담자 4	여	만 29세	30개월	13사례	160회기
상담자 5	여	만 26세	17개월	5사례	80회기
상담자 6	여	만 23세	1개월	1사례	4회기
상담자 7	여	만 32세	4개월	3사례	14회기
평균		27.3세	12개월	4.3사례	49.6회기

문항의 주제별 범주화

상담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생 2명과 석사 1명(상담심리사 2급)으로 하여금 각 문항의 주제를 추출하고 추출한 핵심 주제들 중 서로 중복되는 항목들을 통합하게 하였다. 그 후 상호 합의를 통하여 주제들 중 의미상 유사한 개념끼리 묶고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 1명(상담심리사 1급)의 감사를 받아 다시 수정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은 4개 영역, 14개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내담자와 관련된 문항, 상담자와 관련된 문항, 상담 기술과 관련된 문항,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이 그것이다. 각 영역에 속한 하위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와 관련된 문항

①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 : 비협조적 반응 및 태도

② 내담자 특성 : 내담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의도되지 않은 행동, 태도

③ 종결의지 표현 : 내담자의 일방적인 종결의지 표현

2) 상담자와 관련된 문항

① 상담(자)에 대한 태도 : 상담의 효과, 상담자의 자기 효능성, 자신감

② 상담자 특성 : 상담자의 개인적, 일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③ 부정적 감정 : 상담 회기 중, 회기 후의 감정

④ 내담자에 대한 내적반응 : 내담자에 대한 인상, 느낌, 생각

3) 상담 기술과 관련된 문항

① 언어적 반응

② 내담자 공감, 이해

③ 상담의 진행

④ 상담 구조화

4)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

① 내담자나 상담자 주변의 상황에서 비롯된 어

려움

② 상담환경 : 스케줄 조정, 상담실의 환경, 교육 기회나 사례의 부족 등

③ 기타

이 14가지의 하위 영역을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32개의 문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총 162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 적합도 예비조사 및 문항 선별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보상담자 20명을 대상으로 위의 162문항이 초보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평균값이 3.0이상인 117 문항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거나 청소년 상담실, 대학 상담실 등 상담관련기관에 소속된 상담자 중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문항들 중 상관관계가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이므로 자료를 묶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요인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Cattell(1973)에 의하면 요인분석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추정하고자 하는 요인(본 연구의 문항 수) × 3이상의 피험자 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담경험이 있는 경력 3년 미만의 초보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그 정도 숫자의 피험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상담전공의 대학원생 숫자는 비교적 많지만, 실제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기관의 초보상담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따라서 설문지의 회수도 한계가 있었다. 설문조사는 청소년 상담실 등의 공공기관, 대

표 2. 초보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경력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명	15.1%
	여	135명	84.9%
학력	학사	4명	2.5%
	석사과정	80명	50.3%
	석사수료	15명	9.4%
	석사	48명	30.2%
	박사과정	10명	6.0%
	박사수료	2명	1.3%
자격증	상담심리사	31명	19.5%
	청소년상담사	10명	6.3%
	미취득	88명	55.3%
	기타	30명	18.9%
상담경력	1년 이하	57명	36.9%
	1년~2년	41명	30.6%
	2년~3년	59명	32.5%
사례 수	10사례 미만	91명	58.0%
	10사례~30사례	42명	26.7%
	30사례 이상	24명	15.3%
회기 수	50회기 미만	86명	54.8%
	50회기~100회기	22명	14.0%
	100회기 이상	49명	31.2%
수퍼비전 경험	10회 미만	49명	63.1%
	10회~20회	30명	19.1%
	20회 이상	78명	17.8%

학 상담소, 대학원생, 상담심리학회 월례회 참가자 중 해당자에게 실시되었고 전체적인 회수율은 53%였다. 본 연구의 최종 자료는 초보상담자 159명에게서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 중 남자 상담자는 24명(15.1%), 여자 상담자는 135명(84.9%)이었으며 학력으로는 석사과정 중이거나 석사인 상담자가 약 80%를 이루었다.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가 55.3%, 상담심리사2급 자격증을 가진 상담자가 19.5%였다. 상담경력 은 1개월부터 3년(M=17.6개월, SD=11.9개월)으로 1년 미만이 36.9%, 1-2년 미만이 30.6%, 2년 이상이 32.5%로 나타났다. 경험한 사례수(M=13.6명, SD=21.1개월)는 1사례부터 50사례로 다양했는데 10명 미만의 사례수를 경험한 상담자가 58.0%였으며, 10-30사례 미만이 26.7% 순이었다. 상담회기 수 역시 1회기부터 300회기(M=94.2회기, SD=141.0회기)의 분포를 보였는데 50회기 미만이 54.8%로 가장 많았

고 50회기 이상 100회기 미만은 19.1%, 100회기 이상은 24.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퍼비전 경험(M=10.7회기, SD=14.9회기, 0회-72회)은 10회 미만이 63.1%, 10-20회 미만이 19.1%, 20회 이상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및 상담경력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측정도구

위의 문항 작성 및 선발과정을 거쳐 확정된 117 문항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응답자들의 각 문항의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한 적 없다’의 0을 포함시켰다. 각 문항을 경험했을 경우, 변량을 증가시켜 의미있는 자료를 위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어렵지 않았다’에서 ‘매우 어려웠다’까지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방법

159명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이후 완성된 척도의 하위요인들 및 전체 척도 간 상관분석을 통하여 하위요인들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에서는 SPSS Window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결과

선발된 117개 문항의 요인분석에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해방법으로는 주축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회전방식은 하위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주축분석과 직교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정할 때는 회전하지 않은 요인의 설명변량과 스크리 도표, 그리고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 후 각 요인

별로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성이 낮거나 여러 요인에 동시에 걸리는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문항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 문항들의 관계와 의미적 공통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우선 요인 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고 실시한 결과 1.0 이상의 고유치(eigenvalue)를 보인 요인은 1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ree plot과 요인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이에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한 후 같은 분석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요인에 속한 문항의 공통분(communality)과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른 요인과의 요인 부하량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도 제거하였더니 71문항이 남았다. 이에 71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복되는 문항 삭제 과정을 거쳐 전체 변량의 45.55%를 설명하는 5 요인, 4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완성하였다.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최종 선발 문항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문항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각 요인의 특성에 적합한 요인명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요인 1의 경우 총 13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6.31%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다. ‘상담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것 같다’, ‘상담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처럼 상담자의 자신감,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과,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 ‘상담 도중 화가 난다’와 같은 상담에 대한 내적반응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모두 상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므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1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요인 2은 총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5.68%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내담자가 전화로 종결의사를 표현한다’, ‘내담자가 성(性)에 대한 얘기를 한다’와 같이

초보상담자를 어렵고 당황하게 하는 내담자의 행동 특성들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의 문항들 중 ‘내담자가 상담 이외의 시간에 전화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내담자가 상담 이외의 만남을 원한다’ 등은 상담자의 상담구조화에도 연관되지만 모든 문항의 내용이 내담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포괄적인 ‘내담자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6였다.

요인 3은 총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5.46%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담자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내담자 이해,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와 같은 내담자 공감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의 내담자 이해는 내담자의 문제나 역동과는 다른,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내담자 이해와 공감’으로 명명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요인 4는 총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4.93%를 설명하는데, ‘내담자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한다’,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진다’ 등으로 이는 내담자나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상담자 요인과 특징을 나타낸다고 판단되어 ‘상담자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총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3.16%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상담기술과 관련된 문항들이 주를 이루었다. ‘내담자의 인지적 왜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상담자 개입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인명을 ‘사례개입방법’으로 정하였다. 마지막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표 3.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최종 선별 문항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49문항($a = .94$) 문항	패턴 계수					h^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 (13문항: $a = .91$)							3.93	1.28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	.77	.06	-.08	.01	-.01	.59	4.88	1.74
상담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76	.00	-.03	.07	-.08	.58	4.19	1.80
상담자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74	.05	.03	-.09	.11	.58	4.44	1.67
상담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70	-.06	.05	.00	.19	.61	4.37	1.65
상담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것 같다	.67	.23	.11	-.06	.00	.60	4.25	2.24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67	-.13	.04	.04	.11	.52	4.72	1.52
상담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60	-.03	-.06	.17	-.01	.42	3.25	1.92
내담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57	.24	.16	-.02	-.14	.51	4.18	1.99
내담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49	.07	.24	.10	-.22	.45	4.04	1.88
내담자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46	.14	.12	.14	-.04	.40	3.16	1.87
내담자가 불편하다	.40	.15	.22	.25	-.10	.51	2.72	1.97
상담자로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	.40	.02	.08	.16	.11	.32	4.06	1.64
상담 도중 화가 난다	.34	.20	.11	.17	.04	.34	2.78	1.99
요인 2: 내담자 특성 (7문항: $a = .76$)							2.55	1.32
내담자가 상담 이외의 시간에 전화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07	.65	-.05	-.05	.06	.41	1.96	2.17
내담자가 자주 새로운 문제에 대해 얘기한다	-.10	.61	.20	.00	.18	.45	3.53	1.87
내담자가 성(性)에 대한 얘기를 한다	-.04	.53	-.04	.08	-.01	.30	2.62	2.24
내담자가 회기 끝나갈 때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낸다	.08	.51	-.05	.11	.33	.42	3.91	1.74
내담자가 전화로 종결의사를 표현한다	.24	.50	-.04	.01	-.10	.35	1.81	2.28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30	.44	.02	-.06	-.01	.32	2.79	2.24
내담자가 상담 이외의 만남을 원한다	.00	.44	.08	-.01	-.08	.22	1.21	1.87
요인 3: 내담자 이해와 공감 (10문항: $a = .89$)							3.65	1.23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	.10	-.04	.72	-.14	.27	.64	4.05	1.68
내담자의 핵심역동을 파악하기 힘들다	-.07	-.08	.71	.01	.21	.55	4.33	1.56
내담자의 주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04	.01	.68	-.08	.20	.54	3.75	1.74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08	.19	.67	.08	-.22	.56	3.36	1.82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0	.04	.67	-.13	.19	.54	3.63	1.82
내담자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	.16	.00	.61	.12	-.01	.55	3.19	1.89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문항개발

49문항($\alpha = .94$) 문항	패턴 계수					h^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내담자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11	.24	.58	.18	-.10	.51	3.29	1.82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한다	.08	-.03	.54	.26	-.15	.48	3.28	1.61
내담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22	-.04	.53	.12	-.22	.45	3.40	1.83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19	.09	.39	.11	-.03	.32	4.22	1.75
요인 4: 상담자 특성 (10문항: $\alpha = .85$)							3.12	1.18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09	-.07	-.16	.70	.20	.54	4.07	1.80
내담자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01	.00	-.11	.67	.02	.41	3.38	1.67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진다	.09	.03	-.07	.66	.00	.47	2.87	1.97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다	-.02	-.05	.08	.61	.09	.43	3.10	1.81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한 때에도 안하게 된다	-.01	.01	.02	.57	.02	.34	2.99	1.74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처받을 것 같다	-.01	.01	.07	.56	.05	.36	3.09	1.80
내담자와 거리를 두게 된다	-.16	.10	.21	.52	-.18	.37	3.12	1.65
내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한다	.02	-.03	.22	.51	-.02	.39	2.53	1.80
상담자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다	.25	.02	-.04	.48	.00	.36	2.70	1.89
상담회기를 마칠 때 자연스럽게 못하다	.13	.16	.01	.45	.23	.43	3.36	1.77
요인 5: 사례개입방법 (7문항: $\alpha = .82$)							4.36	1.18
내담자의 인지적 왜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	-.05	.03	.17	.19	.59	.49	4.31	1.73
제한된 상담 시간 안에 회기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	-.10	.29	.07	.15	.50	.38	3.45	1.87
내담자에게 뭔가 해주어야 할 것 같다	.13	-.10	.07	.22	.46	.39	4.65	1.71
내가 상담을 하기에는 내담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17	.19	.07	.21	.44	.46	4.08	1.97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	.29	-.22	.37	.07	.42	.62	4.65	1.59
상담 기술이 부족하다	.35	-.16	.07	-.02	.41	.39	4.95	1.42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31	-.28	.30	.04	.39	.54	4.42	1.67

하위 요인간 상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초보상담자 어려움 척도의 각 하위 요인 및 전체 척도 간 관련성을 호기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 요인 간 상관은 .192 ~ .551까지 분포하였고, 전체 척도와 하위 요인간 상관도 .578 ~ .859까지 분포되어 요인들이 적절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초보상담자의 어려움 척도의 하위요인 및 전체척도 상관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1	1				
요인2	.419***	1			
요인3	.551***	.325***	1		
요인4	.514***	.297***	.454***	1	
요인5	.517***	.192*	.504***	.497***	1
전체	.859***	.578***	.777***	.749***	.701***

* $p < .05$, ***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보상담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 요약하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어려움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한 후, 이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4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주제별로 범주화를 하고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17문항을 선발하였다. 그 후 경력이 3년 이하인 159명의 초보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 47문항이

확정되었다. 5개의 요인은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 반응, 내담자 특성, 내담자 이해와 공감, 상담자 특성, 사례개입방법이었고 이들의 내적 합치도는 .76~.91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하기 전, 문항을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 14개의 하위영역이 작성되었다. 이를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석 전 내담자 관련 영역 중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내담자의 특성 영역은 요인 2인 내담자 특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항들이 최종 선발되었다는 것은 초보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저항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Egan, 1994) 저항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권희경, 안창일, 2000)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요인 1인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의 문항들은 분석 전, 예비 영역 분류의 상담자 관련 영역 중에서 상담(자)에 대한 태도와 상담 중 부정적 감정 영역을 포함한다. 초보상담자는 숙련상담자에 비해 상태불안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낮아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홍수현, 최해림, 2001; 최은실, 2002)처럼 초보상담자의 자신감 부족, 부담감, 불안감, 상담 중 부정적 감정 등은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예비 영역 분류의 상담자 관련 영역에서 상담자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요인분석 결과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져 요인 4인 상담자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의 어려움, 감정 조절, 조언의 부족, 죄책감 등을 나타내는데 Gelso와 Carter(1985)가 분류한 역전이 감정과 역전이 행동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문항들은 초보상담자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자기통찰 능력이 숙련상담자보다 부족하다는 연구(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Hayes, Wagoner, Gelso, & Diemer, 1991)들을 지지한다.

예비 영역 분류에서 상담기술 영역은 요인 5의

사례개입방법으로 정리되었다. 세련된 언어의 사용이나 기술적인 언어에 대한 문항은 삭제되었고 상담 진행과 구체적인 개입방법에 대한 문항이 선별되었다. 각 문항들은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요인 5를 하나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개입방법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내담자 문제와 역동의 파악, 상담 전략 및 목표 설정, 접근 방식에 대한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3의 내담자 이해와 공감은 예비 영역 분류의 상담기술 영역 중 내담자 공감, 이해를 반영한다. 상담기술 영역 중에서 이 부분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묶였다는 것은 그만큼 내담자 이해가 상담에서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 영역 분류에서 내담자나 상담자 주변의 상황에서 비롯되거나 상담실 환경, 스케줄 조정, 교육기회와 같은 상황적 요인도 초보상담자들에게 어려움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Nutt-Williams, 1997; 김길문, 2003)와 치료적 난국에 대한 Hill 등(1996)의 연구는 상담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초보상담자들이 상담회기 이외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에 따르면 이 문항들은 초보상담자의 어려움 경험에 의미 있는 요인이 되지 못했고, 이는 곧 초보상담자들이 상담회기 과정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요인들, 즉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 내담자 특성, 내담자 이해와 공감, 상담자 특성, 사례개입방법 중 사례개입방법, 내담자 이해와 공감, 내담자 특성은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바라는 '내담자 문제의 평가', '치료 목표의 수립과 처치계획', '처치개입 기술', '내담자 호소문제 파악능력', '상담구조화 능력'(문수현, 김계현, 2000)의 습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숙련상담자의 요구가 높

은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 과정 알아차림',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등은 본 연구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초보상담자의 어려움과 수퍼비전에서의 요구가 많은 영역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요인 중 상담에 대한 부정적 내적반응과 상담자 특성은 수퍼비전의 도움 경험(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중 '수퍼바이저의 정서적 지지', '자신에 대한 인식 확장'과 연관되어 있어 초보상담자들의 수퍼비전과 상담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그 동안 부분적으로 연구되던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내용들 중 의미 있는 특성을 추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정리, 요약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항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된 척도가 된다면 각각의 초보상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과 수퍼비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보상담자 본인에게는 상담 중 경험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를 통해 초보상담자들은 주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초보상담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하고, 더 나아가 상담자로서의 자기통찰을 얻고 효과적인 상담기술과 전략을 습득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새로운 초보상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항들이 연구와 상담 실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이 과연 초보상담자의 모든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연구나 이론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항 추출 및 선정, 요인분석 과정에서 통계적 한계와 이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초보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있는 문항이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최종적인 구성개념이기보다는 세밀한 구성과 정의를 위한 과정에 해당되므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추후연구를 통한 문항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인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심층면접과 선행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자료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초보상담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제한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으면서 그 경력이 3년 이하인 상담자로 제한한 까닭에 가능한 연구대상의 범위가 적어서 표집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집의 크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는 문항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요인들의 구조가 적합한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상담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큰 표집을 통해 이들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보상담자를 경력 3년 이하로 정의하였지만 초보상담자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르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경력은 같더라도 상담 사례나 회기 수에 따라서 어려움 경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경력 뿐만 아니라 상담 사례나 회기 수, 수퍼비전 정도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경 (1999). 상담자 태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65-84.
- 권희경, 안창일 (2000). 내담자 저항과 저항에 대한 상담자 개입이 상담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33-53.
- 권희경, 안창일 (2001). 성공 및 실패사례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9-36
- 김길문, 정남운 (2003). 초보상담자가 회기 내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과정: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봉아 (2000).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내담자 언어 반응 상호작용 유형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01).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김계현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박외자 (2002).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유미 (2005).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신재호 (2005). 초보상담자의 상담 성과에 관한 질적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의 발달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443-473.
- 윤재호 (2003).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KIAS)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설 (2002). 상담자의 성격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호균 (1983). 삶 · 상담 · 상담자. 서울: 문지사.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 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주일 (2002).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한녕 (2005). 상담자 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 이수원 (1997).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숙련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언어 반응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57-180.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터넷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움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최가희 (2002).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02). 초보 상담자의 반응 부담이 내담자 상태 알아차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수현, 최해림 (2001). 상담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 효능감 및 상태 불안이 상담 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8.
- Beery, J. W. (1970). Therapists' responses as a function of level of therapist experience and attitude of the pati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239-243.
- Bhon, M. J., Jr. (1965). Counselor behavior as a function of counselor dominance, counselor experience and client typ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346-352.
- Egan, G. (1999). 유능한 상담자: 상담의 문제 대처적 접근. (계석봉, 유계식, 반응역 역). 서울: 학지사.
- Eells, T. D. Eds.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 Guilford Press.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2), 155-243.
- Gelso, C. J., S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F. E. (2002). Countert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861-867.
- Hill, C. E., Nutt-Williams, E., Heaton, K. J., Thompson, B. J., & Rhdes, R. E. (1996). Therapist Retrospective Recall of Impasses in

- Long-Term Psychotherapy.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207-217.
- Howell, J. A., & Highlen, P. S. (1981). Effects of client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non-verbal behaviors on client affe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92-97.
- Mahalik, J. R. (1994). Development of the Client Resistanc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 Mallinc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itchell, K., & Hall, N. (1971). Frequency and type of confrontation over time within the first therapy inter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7, 437-441.
- Moras, k, & Strupp, H. (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 Nutt-Willians, E.,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 of novice therapist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390-399.
- Quintana, S M. (1992). Termination in Short- Term Counseling : Comparison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99-305.
- Strong, S. R. (1968). Counseling: An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6) 562-578.
- Tracey, T. J., Hays, K. A., Malone, J., & Herman, B. (1988). Change in counselor response as a function of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1
- Wagoner, S. L. B.,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3), 411-421.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16.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about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Mi-Ji Kim
Catholic University

This article reports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of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7 novice therapists and qualitative data on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from literature review, 194-item scale was constructed. Through the pilot study, 117 items were extracted. Then, 117-item scale was administered to 159 novice therapists who have less than 3-year counseling experience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emergence of a 47-item scale with 5 factors: Negative internal reactions to counseling, client's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and empathy to client, therapists'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strategies.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of all the final five factors were in the range of .76 to .91. This study is meaningful in quantifying novice therapists' difficulties. Implications for supervision with novice therapist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 : novice therapist, difficulty, factor analysis

